주간 테러동향

'21.3.19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 Weekly Terrorism Trends

유 럽

○ **유럽평의회(CoE), 「테러피해자 추모의 날」 메시지 발표**

- 3.11 CoE는 「제17회 유럽 테러피해자 추모의 날」을 맞아 '모든 형태의 테러리즘을 단호하게 비난하고, 모든 국가가 긴밀히 협력해서 테러리즘을 예방하여 시민들을 보호할 것'이라는 메시지를 발표

  * '04.3.11 스페인 마드리드 열차 폭탄테러 발생일을 「테러 피해자 추모의 날」로 지정

미 주

○ **美, 쿠바 '테러지원국' 지정 해제 검토**

- 3.9 로이터통신은 백악관이 쿠바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를 고려하고 있으며, 美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들도 「바이든」 대통령에게 해당 국가에 대한 '잔인한 제재'를 취소할 것을 촉구(3.3) 했다고 보도

  * 미국은 금년 1월 콜롬비아 반군과 베네수엘라 정권 지원 등을 이유로 쿠바를 테러지원국 再지정

○ **美, ISIS-민주콩고(DRC)·ISIS-모잠비크(안사르 알 순나) 테러단체 지정**

- 3.10 美 국무부는 'DRC*'와 '안사르 알 순나**'를 해외테러단체(FTO)로 지정하고 미국內 자산을 동결시켰으며, 지도자 「무사 발루쿠」와 「야시르 하산」을 국제테러리스트(SDGT)로 지정

  * '20년 민간인 840명 살해

  ** '17.10월부터 민간인 1,300명 이상 살해

○ **美, 연쇄 총격 사건으로 한인 여성 4명 포함 8명 사망**

- 3.16 현지언론은 조지아州 애틀랜타市 근교 마사지숍·스파 등 3개소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, 한국계 여성 4명 포함 총 8명이 사망했으며, 경찰이 용의자 'Robert Aaron Long'(21세, 男)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보도

  * 용의자는 인종혐오 범죄를 부인하고 있으나, 현지언론은 관련 가능성을 지속 제기 中

아 · 태평양

○ 인천공항, 공항 인근 불법 드론 대응 강화

- 3.15 인천공항은 사전 승인 없이 드론 비행 제한구역(반경 9.3km)을 침입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벌금·과태료(200만원↓) 대상이 되며, 이와 별개로 민·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발표

  * '20.9월 인천공항은 '드론탐지시스템'을 구축, '21.2월까지 총 80여건의 불법 드론 비행 적발

○ 아프간 평화협상, 탈레반의 모스크바 컨퍼런스 참석으로 진전 기대

- 3.16 AFP 통신은 탈레반이 오는 18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'국제 아프간 평화 컨퍼런스'에 참석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교착 상태인 美-탈레반 평화협상이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

  * 아프간 정부도 同 컨퍼런스에 참석하기로 旣 결정

○ 스리랑카, 부르카 착용 금지 및 마드라사 폐쇄 추진

- 3.14 스리랑카 공공안전부는 국가안보상 극단주의 확산을 우려하여 무슬림 여성들의 부르카 착용을 금지하고 정부에 未등록한 1,000여 개의 마드라사(이슬람학교)를 폐쇄하겠다고 발표

  * 유럽에서는 '11년 프랑스를 시작으로 오스트리아·벨기에·독일 등에서 부르카·니캅 금지법 시행

아프리카

○ 나이지리아, 무장괴한의 대학 습격으로 학생 30여명 실종

- 3.12 현지언론은 무장괴한들이 나이지리아 북서부 카두나州 소재 연방삼림기계화 대학을 습격하였으며, 軍이 괴한들과 총격전 끝에 180명을 구출하였으나 30여 명은 실종되었다고 보도

  * 나이지리아에서는 무장괴한들이 학교를 습격해 학생들을 납치한 사건이 최근 4개월간 4회 발생

○ 西아프리카, 기니만 해상서 무장해적 네덜란드 선박 공격

- 3.11 기니灣에서 활동중인 무장해적(9명)이 라트비아發 나이지리아行 화학제품 운반선 'Davide B號'를 급습, 선원 21명 중 15명을 납치

역사 속 테러사건

Weekly Terrorism Trends

뉴질랜드, 크라이스트처치 이슬람사원 테러

○ '19.3.15 13:40분경 뉴질랜드 최대 도시 중 하나인 크라이스트처치의 이슬람사원 두 곳에서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, 50명 사망하고 수십 명 부상

- 테러범은 카메라가 부착된 헬멧을 착용하고 범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페이스북에 공유, 관련 영상은 트위터·유튜브 등 SNS를 통해 全세계로 확산

○ 범인은 호주 국적의 「브렌턴 태런트」(28세)로 밝혀졌으며 경찰은 관련 사건을 백인우월주의에 뿌리를 둔 反난민·反무슬림 범죄로 규정

- 실제로 테러범이 범행 직전 인터넷에 올린 선언문에는 "백인들의 땅을 지키려 범행을 저질렀으며, 이민자들이 몰리는 현실을 알리고자 뉴질랜드를 선택했다"고 표현

○ 「저신다 아던」 뉴질랜드 총리는 사건 직후, 총기 테러 재발 방지대책으로 △군대식 공격용 소총 및 반자동 소총, △총기 관련 잡지, △소총 발사 속도를 높이는 장치인 '범프스탁'(Bump Stock) 판매 금지를 발표

테러 상식

Weekly Terrorism Trends

< 범프스탁(Bump Stock) >

- **(정의)** 총기의 반동을 이용해 손가락으로 방아쇠를 반복적으로 당기는 것 같은 효과를 주기 위한 기구
- **(구성)** 피스톨, 개머리판
- **(원리)** 반자동 소총의 개머리판(Stock)에 범프스탁을 부착하면 사격시 발생하는 반동 에너지를 이용해 소총을 앞뒤로 미끄러지듯 빠르게 움직여서 연속 사격을 할 수 있는 자동소총 효과 발생

※ 미국에서도 '16년 출시 이후 합법적으로 구매 가능했으나, '17년 라스베이거스 총기 난사 사건에 범프스탁이 이용되자, '19.3.26부터 전면 사용금지